‘정치색’ 빼고 ‘시민 속 5·18’로 치른다

5·18광주민주화 운동 34주년 기념행사·방향

‘지방선거 선전장’ 변질 우려 정치인 참여 대폭 축소

‘전조등 켜기’ ‘주먹밥 나누기’ 등 주민들이 기획 진행

올해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행사는 정치색을 최대한 배제한 채 치러질 전망이다. 6·4 지방선거에 앞서 5·18 기념행사가 치러지면서 ‘정치 선전장’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자, 기념행사위원회가 정치적 행사를 최대한 축소,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대신 마을·동네별 기념 행사 비중을 늘려 많은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민 속 5·18’ 행사에 초점을 맞춰 전국화에 다가서겠다는 방침이다.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최근 열린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념행사 집행위원회가 밝힌 34주년 기념행사는 ‘정치적 성향’ 탈피에 주안점을 맞춰다.

올 5·18 기념행사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 치러지는데다, 민주당 무공천 등으로 출마 예정자들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 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형편이다.

행사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감안, 민주·인권·평화 등 5·18 기념행사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전 기념 행사 때 정치인들의 참여 폭이 컸던 자유발언대 등의 행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도 이같은 의도에서 시도됐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행사도 집중 배치키로 했다. 집행위원회는 특히 34주년 기념행사 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이슈를 선정,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치권과 연계해 풀어나갈 전략도 추진중이다.

아울러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하던 과거 행사 진행 방식에서 탈피, 각 동네에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해 치러지는 행사 위주로 진행키로 했다. 80년 5월 일어난 택시 차량 시위에서 착안해 진행할 ‘전조등 켜기 캠페인’의 경우 시내버스·택시회사, 광주시 등 기관·단체와 함께 전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치를 수 있도록 계획중이다.

5월 대동 정신을 접할 수 있는 ‘주먹밥 나누기 행사’도 각 동네별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질 계획이다. 점차 시·도민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5월 정신을 많은 지역민들에게 되새기고 계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안평환(47)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과거처럼 5·18 기념행사 기간이 끝나면 5·18을 곧바로 잊어버리는 행사로서는 5월 정신의 전국화는 요원하다”면서 “‘전조등 켜기 운동’이 5·18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져 광주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치러지는 5·18 행사가 5월 광주 및 전국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다음달 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관에서 출범식을 한 뒤 5월 정신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 교육관 위탁업체에 구속부상자회 최종 선정

(사)5·18 구속부상자회가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애초 5·18과 무관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교육관 운영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란에도 불구,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젊은 세대들에게 5월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 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 2013년 11월 26일자 7면〉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5·18 교육관 위탁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는 최근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심의를 거쳐 단독으로 참여한 (사)5·18 구속부상자회에 대한 위탁업체 적합 판정을 내렸다.

구속부상자회가 내놓은 운영 사업에는 1차 심의 과정에서 ‘구색맞추기성 사업’으로 논란이 됐던 ▲유소년 축구교육 프로그램이 그대로 5월 정신을 알리기 위한 교육관 운영 사업에 포함됐고 ▲다문화 가정 특별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등도 운영키로 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5·18 교육관을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5월 정신 계승을 위한 취지로 사용하기 위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5·18 사적지 탐방 및 5·18 역사 신문 제작, 5·18 피해자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도 다른 전문기관 또는 5월 관련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우려도 높다.

광주시는 또 ‘교육관 운영을 위한 지원금(운영비)은 없으며 수탁시설 수익금으로 운영한다’는 기존 방침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종행기자 go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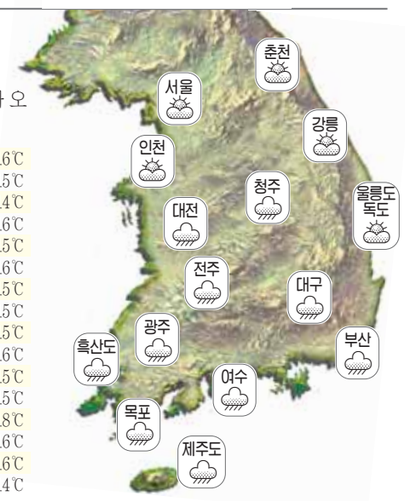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30분 해짐 18시 48분 | 달뜸 02시 09분 달짐 15시 50분

미세먼지 ‘보통’

아침에 곳곳에 내리던 비가 오후들며 강해지겠다.

광 주	흐리고 비	11/16℃
목 포	흐리고 비	10/15℃
여 수	흐리고 비	11/14℃
나 주	흐리고 비	10/16℃
완 도	흐리고 비	11/15℃
구 례	흐리고 비	9/16℃
강 진	흐리고 비	10/15℃
해 남	흐리고 비	10/15℃
장 흥	흐리고 비	9/15℃
순 천	흐리고 비	10/16℃
영 광	흐리고 비	11/15℃
진 도	흐리고 비	10/15℃
전 주	흐리고 비	11/18℃
군 산	흐리고 비	11/16℃
남 원	흐리고 비	10/16℃
흑산도	흐리고 비	10/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1.0~2.0m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1.5~2.5m

	밀물	썰물
목포	08:41 20:56	01:00 14:18
여수	03:49 16:15	10:23 22:1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날 씨						
최저/최고	12/20	8/22	8/21	10/18	7/20	7/19

제주 해상서 어선 화재

한국인 선원 등 6명 숨져

24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08㎞ 해상에서 조업하던 추자 선적 유자망 어선 성일호(38t)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선원 9명(한국인 4명·인도네시아인 5명) 중 한국인 선원 이형수(45)씨와 인도네시아인 선원 누리딘(36)씨 등 5명 등 모두 6명이 숨지고, 한국인 선원 전기철(50)씨가 실종됐다.

선장 김모(37)씨를 포함한 2명은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이씨 등 6명은 인근 어선과 긴급출동한 해경 1505함에 구조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합동으로 제주시수협에 상황대책본부를 설치,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사망자의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천 수양버들 사이로

24일 오후 광주·전남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2도를 웃도는 봄날씨를 보인 가운데, 새싹이 파랗게 돋아난 광주천 수양버들 가로수 길을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며 지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폭력·포커게임’ 물의 K고 교사 관련

장휘국 교육감 공개 사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광주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장 폭행 사건과 상습 포커게임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장 교육감은 24일 간부회의에서 “K고 교사가 학생 지도와 관련해 학교 경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폭력으로까지 번진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광주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또 “놀이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안에서 카드놀이를 자주하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자퇴와 퇴학 등 학생 지도문제로 교장·교감과 갈등을 빚어오다 교장과 동료 여교사를 폭행하고,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카드놀이를 한 광주 K고 S(56) 교사를 최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또 S교사와 함께 밥값·술값 내기 카드 게임을 한 같은 학교 교사 5명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경징계 요구서가 징계위에 제출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4월 평년보다 ‘포근’

올해 봄 광주·전남 지역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이 24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 지역은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남쪽에서 따뜻한 기류가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월에는 평균 기온이 평년(12~13도)보다 높겠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강수량도 평년(69~120㎜)보다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